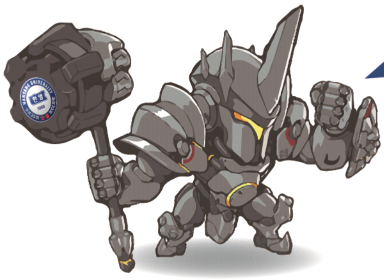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29호
2020. 11. 12.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코로나 비상근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근무에 투입되었다.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시간 동안 행정 서비스는 지연되었고 연구가 중단되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란 터널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과 연구력의 손실이 기한 없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방학도 없이 적은 인원으로 배로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부서들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며 지쳐가고 있고 빼앗긴 시간만큼 대학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언제까지 교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부과하며 대학의 역량을 저하시킬 것인가?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요령도, 매뉴얼도, 전례도 없었기에 대응이 능동적이고 빠른 교직원이 비상근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위기 단계별 요령이 숙지되었다. ‘비상’이 ‘일상’이 되는 과정에서 매뉴얼과 안전 수칙이 마련되었다. 교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도 건물 출입구에서 얼마든지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다른 대학처럼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코로나 비상근무를 맡기고 교직원을 행정 사무실과 연구실로 되돌려 보내 그 시간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1학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 외부 인력 비용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비상’이라는 말로 교직원의 특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지 말라. 지난 10개월 동안 교직원이 무보수로 비상근무를 서며 대학 당국이 대책을 내놓을 시간과 비용을 벌어 주었다. 이제 대학이 ‘비상’을 ‘일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과 예산 계획을 내놓을 때이다.